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스시스

인구 줄어든 전남, 이주민은 2배 ↑

위기의 전남 이주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등록외국인 수는 148만8353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109만1531명)에 비해 36.3%(39만6822명) 증가했다.

이 기간 전남의 외국인인 2만8254명에서 5만7189명으로 102.4%(2만8935명) 급증했다. 전국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127%)와 제주도(1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10년 새 전남 전체 인구가 193만4034명에서 184만6008명으로 4.6%(8만8026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 인구는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46%에서 3.10%로 확대됐다. 인구 감소 추세에서 지역사회에 이주민이 차지하는 존재감은 점차 커지는 셈이다.

그 사이 외국인 인구 구조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당시 중국(4230명), 한국계 중국인(3270명) 비중이 높았으나, 2024년 들어 베트남이 1만7883명으로 전남 전체 외국인의 31% 수준을 기록해 압도적 1위로 올라섰다. 전남 거주 외국인 3명 중 1명은 베트남 출신이라는 뜻이다.

◆이주민 150만 시대... '동떨어진 현실' 베트남 국적자는 10년 전 7448명에서 1만7883명으로 1만435명(약 140%) 증가했다. 인도네시아(1640명→5195명), 네팔(1029명→4198명), 스리랑카(1254명→3678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전남 결혼이민자는 6903명으로, 여성이 91%인 6281명이었다. 이는 결혼이주가 '여성 중심 이주'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농어촌 현장에서는 이미 이주노동자 없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이주여성들 '수입'의 대상으로 표현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주민 인식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구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난 속에서 이주민은 이미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됐지만, 여전히 대상화되거나 도구화되는 시선이 남아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 '수입'이나 '값싼 노동력'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은 통계와 현장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다. 뉴스시스는 3회에 걸쳐 전남지역 이주민 실태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인권침해의 원인을 짚어 본다. 동시에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과제와 지역사회 역할을 모색한다.

전남 이주민 6만명 돌파 앞뒤 10년 새 102% 증가 증가율 전국 3위... 지역경제 핵심 축, 의존도 높아 시대 변화 속 '인구 대책·노동력 수단' 시선 여전 "지역사회 '다문화시대' 준비 갖춰야"

이는 어업과 농업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말이 공명한다. 조선·제조업, 축산업, 양식업 등에서도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전남의 외국인 증가는 단순한 체류 인구 증가가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된 변화다. 이주민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과 달리, 이주민을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줄고 이주민 늘었지만... 여전히 인구·노동 수단 취급 김희수 진도군수가 행정통합 관련 타운홀 미팅에서 인구소멸 대책을 언급하며 "스리랑카-베트남 처녀를 수입해 농촌 종각을 장가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발언은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를 '인구 대책'이나 '노동력

보완'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베트남과 스리랑카는 전남 등록외국인 비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다. 이미 지역 산업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을 수입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현실과 발언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이주여성단체 관계자는 "이주민은 이미 지역의 이웃이자 동료, 가족 구성원이지만 여전히 인구 대책이나 노동력 보충 수단으로 여겨지는 현실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남 이주민 6만여명 진입을 앞둔 시점 지역사회가 이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전남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 진로·진학·학습의 길 찾다

학생·학부모 성장 이끈 상담 우수사례 25건 발굴... 디딤돌 공개

전남남도교육청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진로·진학·학습 상담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끈 상담 우수사례 25건을 발굴·공개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단순한 임시 결과나 성적 향상에 초점을 둔 사례가 아니라, 상담 과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해 간 과정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 특징이다. 고등학생 대상 진학 상담은 물론,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상담, 학습 부진과 동기 저하를 겪던 학생을 위한 학습코칭 상담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 진로, 막연한 고민에서 '나만의 방향'으로 진로 분야 상담 사례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아이에게 어떤 길이 맞는지 알 수 없다"는 등 진로가 막연한 학생들의 고민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진로상담은 직업 정보 제공이나 진로검사 결과 안내에 그치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 경험과 학교생활, 학습 태도, 흥미와 강점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탐색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 선택에 대한 부담을 점차 줄여 나가기 된다.

사례집에는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구체적인 선택지로 정리한 사례, 진로 변화 경험을 실재가 아닌 성정의 과정으로 재해석한 사례, 중학생 단계의 진로 탐색을 고등학교 선택까지 연계한 사례, 학부모 상담을 통해 자녀의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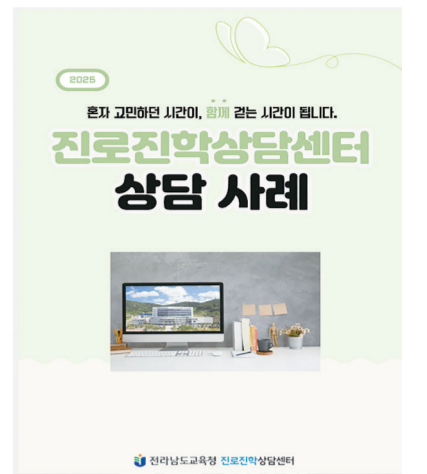
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부모 대상 진로 상담 사례에서는 자녀의 진로를 대신 결정하거나 성과 중심으로 바라보던 보호자가 상담을 통해 자녀의 특성과 학습 능력을 이해하고, 조력자 역할로 변화한 모습이 인상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 상담이 학생 개인의 변화를 넘어 가정 내 소통과 인식 전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진학, 불안한 입시를 '답답가능한 전략'으로 진학 분야 상담 사례는 수시·정시·면접 등 복잡한 입시 환경 속에서 학생의 불안과 혼란을 체계적인 진학 전략으로 전환한 과정을 볼 수 있다. 진학 상담은 전형 요강이나 대학 정보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의 성적과 학생부, 학교 여건과 진로 희망은 물론 선택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혼란의 원인까지 함께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가능한 전형'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이해하고, 지원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이번 사례집에는 전형 선택의 혼란을 분석을 통해 전략으로 전환하거나, 성적의 한계를 학생부와 지원 방향 재구성을 통해 보완한 사례, 면접 준비 과정을 체계화해 자신감을 회복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일부 사례에는 상담 회기가 거듭될수록 학생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처음에는 "어디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던 학생이, 상담 이후에는 자신의 지원 전략을 스스로 설명하고 선택의 이유를 말하는 게 대표



적이다. 이는 진학 상담이 단기간의 입시 지도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 이해와 의사결정 역량을 함께 키우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 학습,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다 학습 분야 상담은 단기간의 성적 향상보다 학습 태도와 정서 회복에 초점을 뒀다.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학습 자신감을 잃거나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하던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 학습 동기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 담겼으며,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 장기 상담 사례도 다수 포함돼 지속적인 상담 개입의 효과를 보여준다.

센터의 학습코칭 상담은 성적 향상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상담 과정에서는 학생의 생활 패턴과 학습 환경, 정서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무리한 목표 대신 실현 가능한 작은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설계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해야 하는 공부'가 아닌 '할 수 있는 공부'를 경험하며, 학습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점차 줄여 나가기 된다. /염선호 기자

광산구, 장수천 토구 일원 악취 잡는다

장수천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하수 악취 개선

광주 광산구는 장수천 주변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수천 토구 일원 악취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관리편람에 따르면 황화수소 농도 0.3ppm 이상 시 누구든지 냄새를 인지할 수 있으며, 3~5ppm은 냄새가 강하고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

장수천 주변 하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산구는 장수천 토구 일원의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해 결과, 0.5~1.0ppm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산구는 악취 해결을 위해 장수천 보도교 하부에 위치한 토구에 악취저감시설 1개소를 설치해 토구에서 배출되는 근본적인 복합악취를 차단하고, 장수천 산책로를 따라 대기편승 악취저감시설 1개소도 설치해 대기 중에 노출된 악취 농도를 줄일 계획이다.



현재 악취저감시설은 지난해 12월에 완료됐으며, 대기편승 악취저감시설은 3월 중 설치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악취저감 기본계획을 통해 최적의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했다"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준행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